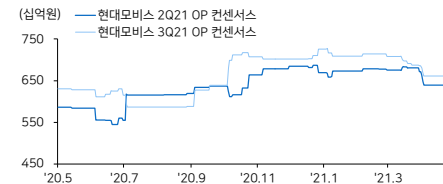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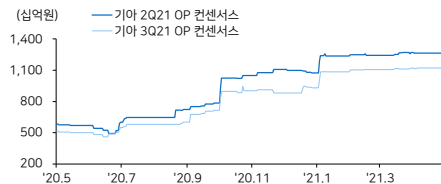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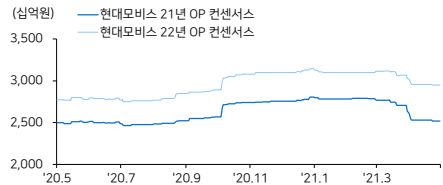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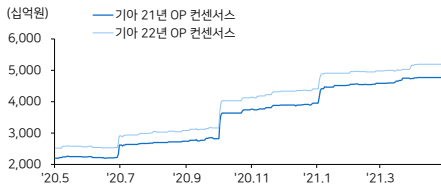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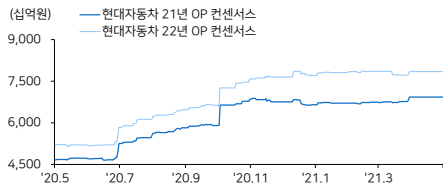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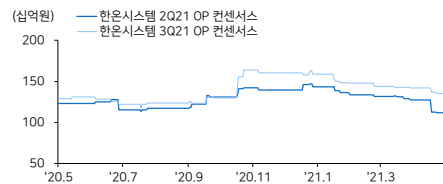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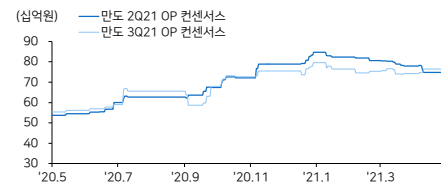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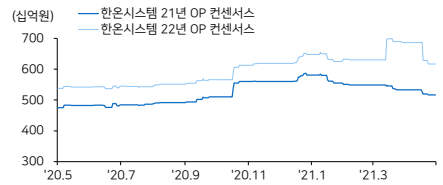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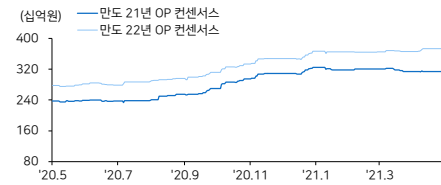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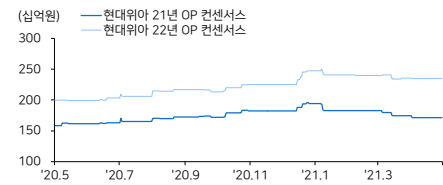
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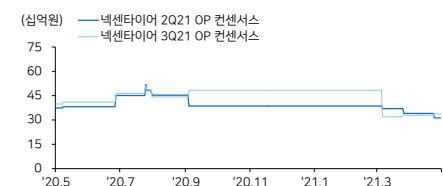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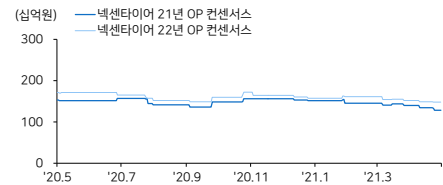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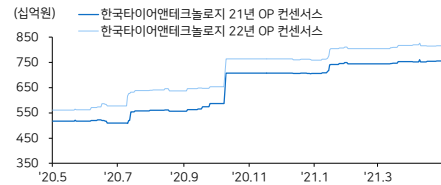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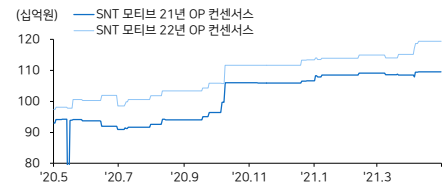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차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현대차, 내연기관 모델 50% 줄인다...3월에 내부 승인 (머니투데이)

현대차 관계자는 내연기관 모델 50%를 감축하기로 했으며, 이 계획은 이미 지난 3월 최고경영진이 승인했다고 밝혔다. 또한 "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·개발(R&D) 자원이 전기모터와 배터리, 연료 전지 등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하는 것"이라고 언급.
<https://bit.ly/3oYRngt>

현대차, 佛 'H2SYS'와 수소발전 시스템 공동 개발 (THE GURU)

현대자동차가 프랑스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기업 'H2SYS'와 손잡고 수소발전시스템 공동 개발에 나선. 앞서 현대차는 HTWO를 론칭하면서 국내/유럽/미국/중국 4대 거점을 중심으로 '30년 70만기의 수소연료전지 판매목표'를 세운 바 있음.
<https://bit.ly/2R0xrqQ>

U.S. Senate panel advances EV tax credit of up to \$12,500 (Reuters)

미국 상원 재무위원회가 미국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한 세금공제액을 12,500달러 높이는 법안을 발표. 기본 보조금 상한선인 20만달러 판매량을 넘어서고 전기차 판매가 미국 총 완성차 판매의 50%에 도달하면 단계적으로 보조금을 폐지한다는 내용.
<https://reut.rs/2QWrb3c>

열로 부른 中무인택시...QR찍자 속 출발 (매일경제)

지난 5월 2일부터 베이징에서는 무인 로보택시 '아폴로'가 구글 웨이모에 이어 세계 2번째로 서비스 시작. 지정된 정거장에서만 승하차가 가능하며, 요금은 일반택시 기본요금의 2배인 30위안(한화 5,100원). 비상상황 지원 위해 원격 운전자 대기.
<https://bit.ly/3hUXue9>

제네시스 G80 등 현대·기아차 70만대 리콜..*화재 가능성* (조선비즈)

현대차·기아가 생산한 4개 차종 70만583대가 전자제어 유압장치(HECU) 내부 합선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 절차. 대상 4종 중 G80(DH)이 22만2,000대, 그랜저(G) 19만여대와 기아 스포티지(QL) 18만여대가 포함.
<https://bit.ly/3fr4ZJl>

현대차, 내년 하반기 아이오닉 5 러시아 출격 (THE GURU)

현대자동차 E-GMP 기반 순수전기차 아이오닉5가 내년 러시아 시장에 출격할. 현대차가 유럽에서 모빌리티 구독서비스 '모션 서비스스킴'을 강화하고 있어 구독 서비스도 함께 선보일 것으로 보임.
<https://bit.ly/3wy5h5F>

소니, 전기차 시장 뛰어들다...연내 日내 도로 실증시험 (파이낸셜뉴스)

요시다 겐이치로 소니그룹 회장은 경영방침 설명회에서 "모빌리티의 안전 영역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고 있다"며 전기차 부품 사업을 강조하면서 전기차 시장 가능성을 내비침. 연내 도로 실증시험 실시 목표도 제시함.
<https://bit.ly/3p0aPU2>

日 닛산, 영국에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 추진 중 (조선비즈)

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닛산 자동차와 영국 정부의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 논의가 최근 진전을 보이는 중. EU 탈퇴 후 투자 유치가 필요한 영국과 유럽 인기모델 '리프' 생산을 늘리려는 닛산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분석.
<https://bit.ly/3p0aTxsY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,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